

# 실력·팀워크·용병술 완벽...사브르 금빛 세대교체

펜싱 유럽 강국 꺾고 3연패 새역사  
오상욱, 사상 첫 펜싱 2관왕 달성  
구본길, 3개 대회 참가 '해피엔딩'  
신예 박상원, 대담한 플레이 눈길  
도경동, 결승 접전 속 조커 맹활약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시상식에서 한국 구본길,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종주국' 프랑스와 '펜싱 강국' 헝가리를 넘어 단체전 올림픽 3연패 고지에 올랐다.

오상욱(27·대전시청), 구본길(35·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23·대전시청), 도경동(24·국군체육부대)이 호흡을 맞춘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1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헝가리와의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결승에서 45-4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2012년 런던, 2021년 진행된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단체전 3연패에 성공했다. 2016년 리우데자이루 대회에서는 종목 로테이션으로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첫 금메달 소식을 전했던 오상욱은 우승을 확정하는 45번째 점수를 완성하면서 이번 대회 한국 선수 첫 2관왕에 올랐다. 오상욱은 이번 금메달로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 타이틀도 차지했다.

'말행' 구본길은 3연패 순간을 모두 지키면서 한국 펜싱의 역사가 됐다.

도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오상욱과 구본길은 호흡이 적격 맞았던 베테랑 김정환과 김준호의 국가대표 은퇴로 '신예' 박상원·도경동과 새로 호흡을 맞췄다.

우려와 달리 대표팀은 '월탐'으로 결승전까지 올라, 금메달까지 만들었다.

박상원이 1라운드에서 개인전 올림픽 3연패에 빛나는 아론 실라지를 맞아 먼저 2점을 내줬지만 내리 3점을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바꿨다. 3-4 역전을 허용했던 박상원은 다시 승부를 뒤집고 5번째 점수를 먼저 만들었다.

이어 두 번째 주자 '에이스' 오상욱이 피스트에

등장했다.

먼저 2점을 내주면서 5-6이 됐지만 오상욱이 빠른 공격으로 흐름을 바꿨고 역승으로 8-6을 만들었다. 그리고 10-8에서 구본길에게 자리를 넘겼다.

구본길은 안드라스 사트마리와 대결에 나서 12-11에서 연달아 공격에 성공하면서 15-11로 점수를 벌리고 피스트에서 내려왔다.

다시 박상원의 무대가 돌아왔고, 치열한 접전이 전개되면서 18-17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그러나 박상원이 연달아 점수를 더하며 20-17을 만들었다.

이어 구본길과 아론 실라지의 '베테랑' 맞대결이 펼쳐졌다. 두 선수는 팽팽한 승부를 펼치면서 5점

씩을 만들었고 25-22로 5라운드가 끝났다.

그러나 6라운드에서 한국이 역전을 허용했다.

오상욱이 25-24로 추격을 허용한 뒤 피스트 뒤로 밀리면서 25-25 동점이 됐다. 그리고 리드까지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내 반격에 들어간 오상욱이 26-26을 만들었고, 사트마리도 밀리지 않는 승부를 하면서 팽팽한 동점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29-29에서 오상욱이 공격에 들어가 30점에 먼저 이르렀다.

이어 한국의 용병술이 적중했다.

구본길을 대신해 도경동이 이번 단체전에서 처음 피스트에 올랐고 거침없이 공격에 들어갔다. 베타같이 득점을 만든 도경동은 그대로 5포인트를 얻

달아 올리면서 35-29를 만들었다.

박상원이 분위기를 이어 8라운드 첫 득점에 성공했지만 연달아 2점을 내주면서 36-31이 됐다. 이내 38-32로 헝가리를 밀어낸 박상원은 1점을 내줬지만 바로 40점을 채운 뒤 오상욱을 피스트로 불러냈다.

40-33에서 시작된 9라운드, 오상욱이 실라지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연달아 3점을 허용했다. 40-36까지 쫓겼지만 첫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흐름을 끊은 오상욱은 연속 득점으로 43-36을 만들었다.

금메달까지 2점을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실라지가 3연속 공격에 성공했다. 43-39까지 좁혀왔지만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상욱은 곧바로 공격을 펼

쳐 44-39를 만들었다.

금메달 포인트에 이르렀지만 점수를 내주면서 44-40. 이어 오상욱이 동시에 공격을 한 뒤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심판의 판정은 달랐다. 44-41에서 다시 자세를 가다듬은 오상욱, 실라지의 공격을 막고 그대로 점수까지 연결시키면서 심판을 불 필요 없이 확실하게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도쿄 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합작한 '어벤져스'(어벤져스+펜싱) 멤버 중 두 명이 이탈했지만 박상원, 도경동을 새로 맞춘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이번 금메달로 뉴 '어벤져스'의 시작을 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세계는 지금 '김예지 앓이'

사격 경기 영상, 유튜브 수천만회 조회  
'시크한 매력' 일본 머스크·타임지 등 거론



한국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31·임실군청)가 화제의 선수가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올라온 김예지의 영상은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무심한 듯 표지지를 응시한 뒤 사격하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음에도 동요 없이 관중을 만지는 여전사의 모습은 벌써 조회수 수천만 회를 기록 중이다.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마저 "파로 연기할 필요 없다.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고 댓글을 남겼다. 이러한 열풍을 두고 타임지가 "세련된 차림새와 자신감으로 인터넷을 사로잡은 한국의 명사 김예지가 이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린다"고 소개할 정도다.

김예지는 2일 열리는 25m 권총 본선을 통해 결선 진출에 도전한다.

지난달 28일 공기권총 10m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예지는 "주 종목인 25m 권총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다.

김예지와 양지인(21·한국체대)이 출전하는 25m 권총은 여자 선수 전용 종목이다.

본선 경기는 크게 완사 30발과 급사 30발로 나뉜다. 먼저 완사는 5분 내로 5발을 쏘는 제한 시리즈이고, 총 6번의 시리즈를 치른다.

급사는 표적이 3초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뒤 7초가 지나면 다시 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수들은 표적이 나타난 3초 이내에 사격을 마치고 7초 동안 대기하다가 다시 3초 동안 사격해야 한다.

본선의 완사와 급사 모두 30발씩 사격해 총 60발을 쏘고, 1발당 10점이라 만점은 600점이 된다. 8명이 나서는 결선은 모두 급사 방식으로 치른다. 8명의 선수는 일제히 한 시리즈에 5발씩 3시리즈 15발을 쏘고, 이후 5발을 쏠 때마다 최하위가 한 명씩 탈락한다. 이때 표적지에 10.2점 이상 맞았을 때만 히트(HIT)를 인정해 1점을 얻고, 10.2점 미만이면 0점 처리된다.

김예지는 지난 5월 국제사격연맹(ISSF) 바쿠 사격 월드컵 이 종목 결선에서 42점을 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화제가 된 영상이 바로 바쿠 월드컵 결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순간이다.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니' 세계적인 스타가 된 김예지를 두고 한국 사격계는 좋은 일이 겹친다며 즐거워한다.

파리 올림픽에서 현재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인 2012 런던 대회(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성적 재현을 눈앞에 둔 한국 사격은 그토록 염원했던 대중들의 관심까지 얻는 데 성공했다.

25m 권총에 김예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문 김예지의 세계 랭킹은 4위이며, 2위가 바로 양지인이다. 국내 대표선발전에서도 양지인이 1위, 김예지가 2위였다.

양지인은 올해 자카르타 아시안선수권대회 이 종목 결선에서 41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바쿠 월드컵 1차 결선에서 똑같은 점수로 타이 기록을 남겼다.

김예지와 양지인이라는 두 명의 '에이스'를 보유한 25m 권총은 이번 대회 사격 3번째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연합뉴스

## 호남의 딸들 금 사냥 나가신다

안세영, 내일 배드민턴 8강...남수현, 같은 날 양궁 개인전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한다.

나주 출신 안세영(삼성생명)은 1일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벨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조별 예선 2차전에서 프랑스의 치셰페이(세계 53위)를 2-0(21-5 21-7)으로 꺾었다.

안세영은 정확한 인-아웃 판단과 빈틈없는 수비를 앞세워 2승 무패로 16강에 진출했다.

이번 올림픽 1번 시드를 받은 안세영은 16강 부전승으로 자동으로 8강에 선착했다.

지난 28일 예선 1차전에서 칼로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세계 74위)에 예상대로 승리했지만 잦은 범실을 했던 안세영은 이틀을 쉬고 치른 치셰페이와 경기에서 실전 감각을 되찾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1게임은 네 배가 넘는 점수 차로 단 14분만

에, 2게임은 16분만에 끝나며, 안세영은 총 30분 만에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안세영은 오는 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는 8강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메달 획득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안세영의 숙적 천위페이이는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미야 불리슈펠트(덴마크)를 2-1로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2번시드를 배정받은 천위페이도 부전승으로 8강에 자동으로 올랐다.

한편, 안세영은 나주 출신으로 풍암초-광주체중-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오는 3일 안세영의 8강 경기에 맞춰 나주시체육회는 나주정미소 1동에서 응원전을 진행한다.

여자 단식 결선은 오는 5일 오후 4시 45분에 열린다.

양궁도 쾌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순천의 딸' 남수현(순천시청)은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10연패에 이어 개인전 메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순천여고를 졸업하고 올해 순천시청에 입단한 남수현은 지난 31일 프랑스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64강전에서 자나 알리(이집트)에게 7-1(30-23 29-25 28-28 29-28)로 승리했다.

남수현은 이어 열린 32강 마리 호라코바(체코)와의 경기에서는 7-3(28-28 27-24 28-28 29-29 29-24)으로 이겼다.

남수현은 마리 호라코바에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지만 동점이 세 번이나 나오며 치열한 경쟁 끝에 16강행을 이뤘다.

16강전은 오는 3일 오후 6시 1분 열린다. 남수현은 이날 마달리나 아미아스트라이에(루마니아)와 8강 진출을 놓고 싸운다.

개인전 금메달 결정전은 이날 오후 9시 46분에 열린다.

앞서 남수현은 지난달 29일 전주영영(인천시청), 임시현(한국체대)과 함께 여자 양궁 올림픽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한국 양궁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기적의 사나이' 中 판잔리

수영 자유형 100m 세계新...아시아 선수 92년만에 금

판잔리(19·중국·시진)가 2024 파리 올림픽 경영 종목 첫 세계신기록의 주인공이 되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92년 만에 남자 자유형 100m 챔피언에 올랐다.

판잔리는 1일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6초40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자신이 올해 2월 2024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계영 400m 결승에 중국의 첫 번째 영자로 출전해서 세운 종전 기록(46초80)을 0.40초나 줄였다.

파리 올림픽 수영 경영에서는 유독 선수들의 기록이 저조해 외산에서 라데팡스 수영장의 얇은 수심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잔리는 괴물 같은 기록으로 이번 대회 수영 경영 첫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울러 판잔리는 아시아 선수로는 1932년 미야자키 야쓰지(일본) 이후 92년 만에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주목받는 올림픽 무대, '서양 선수들의 전유물'로 불렸던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해 판잔리의 기쁨은 더 컸다.

판잔리는 초반부터 페이스를 주도했고, 47초48에 터치패드를 찍은 2위 카일 차머스(호주)를 무려 1초08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다비드 포포비치(루마니아)가 47초49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